

임간경제성 수종 재배기술 개발 연구

(자체연구, 2010~2013)

이서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말오줌나무 섬바디나물을 이용하여 차광실험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차광 75% 처리구에서 진초의 생장량 이 평균 85cm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생장률이 낮은 조건은 95% 차광 처리구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수분스트레스 해결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인한 생장율 감소 폭이 두 대상종 모두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 론

최근에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식용식물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야생으로 자라는 식용식물들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자생지에서의 과도한 채취에 의해 멸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무분별한 채취에 의해 산림생태계의 교란, 산림자원의 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부산물 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임지에서 생산하는 혼농 임업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서해안시대 도래에 발맞추어 경기지역 해안과 도서지방 산림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 내 생산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강구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수림지대는 유지하며, 동시에 수익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임간(복층)재배 형식을 바탕으로, 기 재배되지 않았던 수종을 선정하여 최적 생육환경을 규명하고 나아가 임간재배와 노지재배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임간재배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임간재배법 확립에 활용하고자 함이다.